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불교를 '비(非)정치적인 반(反)정치적인 종교(un-political and anti-political religion)'로 규정했다. 이는 불교가 철저하게 비(非)사회적인 종교로서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고 불교의 고립 은둔적 행태가 사회발전 정치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이러한 베버 류(類)의 비판은 자료부족에서 오는 오해이거나 출가중(出家衆)의 상가(sangha)를 불교공동체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불교공동체, 곧 빠리사(parisa, 大衆)는 역사적으로 정치인·지식인·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그룹들로 형성돼 있다. 출가중(사마나; samana, 沙門)도 이러한 시민그룹의 하나이다. 이것은 불교도가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불교가 정치사상 및 정치적 행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부터 부처님을 비롯한 초기 빠리사의 많은 리더들이 정치인(카피야, 크사프리아) 출신이란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석가족 전체가 카피야(khattiya), 곧 정치적 군사적 종족이었다.

따라서 불교도는 정치현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약소국의 왕자로서 직면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고타마의 출



불자 세상보기

김재영
불교학박사·청보리회법사

‘오계’로서 표준 삼아라

<五戒>

가고행과정에서 중요한 동기의 하나로서 작용했다. 고타마의 이러한 정치의식, 곧 카피야의식(khattiya意識)은 성도 후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절기차게 작동하고 있다. 법의 바퀴(法輪, dhamma-cakka)를 굴리며 험한 벌판과 폭류를 넘어 황무지를 개척하고 담마를 전파하는 부처님과 초기 빠리사의 전도운동에서도 이러한 카피야적 정치·사회의식은 기본적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그대 영웅이시여. 전쟁의 승리자시여...”(율장대품-마하박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전쟁영웅으로서 찬탄되는 것도 불교도의 치열한 정치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불교도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전륜성왕(轉輪

聖王, Cakkavati)’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전륜성왕은 ‘담마 라자(Dhamma-Raja)’로 ‘법의 왕’을 뜻한다. 청문회 바람이 또 한 바탕 거칠게 휩쓸고 갔다. 정의도 없고 표준도 없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계산만이 탐욕스럽게 지배하는 비극적 상황이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청문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으면, 들려오는 답은 대부분 “관심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 냉소적이다. 비판하고 욕할 기력도 흥미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불교도들은 그래서 안된다. 세상이 다 외면하고 무관심하더라도 불교도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요구하

고 나서야 한다. 치열한 정치의식 즉, 엄중한 정치비판 이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불교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국가, 전륜성왕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 불교도들의 오랜 이상이고 사명이다. 이것이 ‘성취 정토원(成淨土願)’이다. 이것 없이, 눈감고 앉아 천년 만년 마음살피고 기도하고 교리연구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쫓겨야 한다. 그만한 꿈 꿔 봐도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오계(五戒)로서 청문회의 표준을 삼을 것을 요구한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 따르면, 전륜성왕이 표준으로 삼는 정의는 곧 오계이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나치게] 술 마시지 말라.” 이것이 전륜성왕이 요구하는 정의의 표준이다. 폭력전과자, 부당산투기 탈세 과도한 보수 등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늘린 자, 성폭행 성희롱자, 위장전입 논문표절 위증 자료부실 제출 및 허위기재 증인불출석 등으로 거짓말 하는 자와 막달 욕설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이면 자들이 마땅히 원천적으로 청문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엄중한 청문회의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표준이 되는 사회, 정치인들의 정략이 표준이 되는 어리서고 탐욕스런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

불사심의기구 구성 서둘러야 한다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지구 내 사찰의 건축불사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1월 개원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그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정부와 정당에 절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개정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경내지를 자연공원 구역에서 제외하라는 주장까지 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계종의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환경·생태에 주목했던 만큼 사찰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또 사찰이 수행·신앙의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수

행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고,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공간이 늘 부족했다. 자연공원법이 사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니 불교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러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공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이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불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눈살을 찌푸리는 건축불사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건축불사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연공원법 개정을 소리 높여 외쳐온 조계종은 스스로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자연공원 내 사찰의 건축불사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가칭 건축불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해졌다.

백양사 스님들의 자리다툼 민망하다

유서 깊은 수행도량 백양사가 요즘 시골시골하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내놓는 입장이 너무 달라 소란을 피우는 연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장인 수산스님과 전 주지 지선스님 등의 법명이 거론되어 듣기에 민망스럽다.

총림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스님이 주지를 임명하니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사찰에서는 총림이 되고 싶어도 사격이 뒷받침되지 못해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맞박아친다. 지선스님이 주석했던 작은 산방에서 초파일에 연등을 점수했더니, 그렇지 않냐니 하는 데 이르러서는 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이런 사안이라면 마땅히 산중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산중에 여러 어른들이 계시고, 법도가 있지 않은가. 그저 활발한 사찰이 아니고 총림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찰에서 법규위원회와 중앙총회에 가부를 판단해달라고 말걸 일인가.

최근 백양사의 갈등을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자리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허방한 일이요, 지금 백양사는 총림의 격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들은 시종으로 돌아가 자중하는 가운데 화합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화합은 비움과 버림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는 말이다. 우울하고 짜증이 나도 “한 마음 잘 다스리면 된다”, 죽을 듯이 괴로워도 “다 너의 한 생각 차이니 잘 돌보도록 해라.” 입장에서 직접환자들과 대면하다 보면 이 말처럼 막연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말도 없다. 누가 모르는가? 분노로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들끓는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잡고 다스리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무작정 참는다고, 무작정 잘 다스려보아야 한다고 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뇌’이다.

현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뇌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전인적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의 건강문제의 화두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통합하여 몸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양철학과 서양기술의 만남이자, 정통 과학 의학과 대체의학을 통합한 치료 기준이다. 또한 이 새로운 형태의 치료에 있어 중심은 뇌-몸-마음을 하나로 치료하는 것이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은 인류건강의 핵심으로 심리학적 마음 즉 뇌를 주목하고 계셨다.



사부대중 칼럼

박지숙
카루나 마인드힐링 연구소장

불교와 뇌과학

우리의 한 생각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육체의 신진대사와 생리 기능의 많은 변화로 이어진다. 뇌를 일면 인간을 알 수 있다. 뇌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다.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고, 교감신경을 통제하며, 통증도 뇌에서 조절하고, 회로에 락 또한 모두 뇌에서 컨트롤된다. 예를 들어 뇌기능이 떨어지면 민감해지고, 통증을 더 크게 느낀다. 뇌신경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해 문제를 일으킨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면, 입이 마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 즉 뇌는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균형감각, 정보의 전달 등 우리 몸과 마음, 사고와 행동의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주

체적인 필드인 뇌는 우리 몸과 마음의 사령탑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불가사의한 존재라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화가과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고 하면서 일찍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고 있음[一切唯心造]”을 밝혔다. 일체는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이 한 생각은 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우리 삶의 질에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뇌의 불균형이 일어나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 산만, 주의력결핍, 육체피로, 통증과다 느낌, 우울증, 화병,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아이의 경우 쉽게 짜증을 내고 지

루해하며 정서가 불안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뇌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감정 상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 짓는다. 즉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뇌기능이 떨어져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평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행복해질 수도 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는 ‘뇌기능’ 즉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뇌의 기능이 향상되어 뇌의 균형과 발달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합영역의 기능이 향상되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뇌의 건강과 균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냄새와 소리 시각을 통한 뇌신경 자극 운동으로 뇌의 균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설탕과 밀가루 등의 섭취를 줄인다. 그리고 비타민C는 뇌를 젊게 해주며, 뇌기능을 증진시키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오메가 3, 6의 균형 있는 섭취는 기분을 향상시켜주고 공격성을 줄여 들게 하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유산소 운동은 두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노화를 방지하고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명상은 뇌세포 생성을 돕고 머리가 가장 좋아지는 치료제이자 약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의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무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토크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인체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상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분희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이고, 기숙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년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울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미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정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주지 직인 공고

●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상기사찰은 불기2554년(2010)년 8월 31일부터

주지 직인을 공고하오니,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031)470-3100 / FAX 031)470-3116